



인 사

▲ 해양수산부

- 국장급

- 수산정책관 방태진, 어촌양식정책관 박준영(4.22), 대변인 박광열, 국제원양정책관 정복철, 어업자원정책관 라인철(5.2)

- 과장급 전보

- 양식산업과장 전재우(4.10), 허베이스피리트피해지원단 어업인지원팀장 양영진, 동해지방해양항만청장 박판돌, 군산지방해양항만청장 김형대, 목포지방해양항만청장 남광률, 포항지방해양항만청장 공평식, 평택지방해양항만청장 김광용(4.22)

5월의 크린오션호 및 어항청소선 운항계획

선 명	기간	지 역(항)	선 장	연 락 처
어항 901호	6~20	위도, 석도, 격포, 말도, 비응항	백남춘	011-247-5592
어항 902호	17~30	서망	이일구	010-7175-5590
어항 903호	6~17	덕흥, 남성, 나로도	조동식	011-230-5591
어항 904호	9~20	보옥, 이목, 소안	황원배	011-232-5596
어항 905호	8~25	유호, 관포, 시방, 동호, 외포, 능포, 지세포, 구조라	하용만	011-247-5593
어항 906호	1~15	사동, 직산	김성훈	011-247-5594
어항 907호	1~15	호산, 장호, 궁촌, 사천진	최일선	011-243-5597
크린오션1호	1~10 15~30	덕적, 진리, 자월, 굴업, 소야도, 인흥, 외연도, 어청도, 모항, 호도, 녹도	김용익	011-243-5590
크린오션2호	2~13	돌산, 낭도, 안도, 연도	박주중	010-6393-5596

어촌 View Point 100 ④ 강원 삼척 장호

부지런한 어업인,
부지런한 갈매기,
부지런한 '진사'

장호 정치망 어선 귀항 ▶

- CANON EOS 5D MARK II
- 초점거리 210mm
- 10월 13일 am 7:10
- 촬영모드 TV / ISO100
- 셔터스피드 1/250초
- 조리개 F6.3
- 화이트밸런스 Auto



여명, 해면 위에 열린 안개가 깔려있다. 벌써 전망대에 올랐다가 일출촬영을 포기하고 내려오는 '진사'를 만나 잠시 기상에 대한 의견을 주고받는다. 일출도 좋지만,

장호항은 부지런한 정치망 어업인들이 많기로 소문난 마을. 보통 새벽4시면 출어하니 잠시 뒤면 위판시간에 맞춰 입항할 것이었다.

일출방향 오른쪽 멀리 한창 그물을 올리는 정치망 어업인들이 아련히 보임에 전망대 난간 한쪽에 삼각대를 기대 세워놓고 기다린다. 앞쪽 바다에는 갈매기 떼가 얹은 암초도 있다. 정치망 어업인들은 귀항 중에 잡어를 골라내니 이를 먹으려고 갈매기들이 따라오는 게 예사. 암초 위의 갈매기 떼까지 덩달아 비상하면 더 좋을 듯 했다. 자망어선들이 먼저 귀항하며 어촌의 아침을 깨운다.

어획량이 많은지 좀체 조업을 마무리를 하지 못하던 '타깃' 정치망 어선이 드디어 포구 쪽으로 뱃머리를 돌린다. 날은 흐리나 이미 해는 떠있을 시간. 어선의 빠른 움직임에 맞춰 셔터스피드를 1/250초에 맞춰놓고 암초 부근으로 지나가기를 기다렸다가 셔터를 눌렀다. 예상만큼 많은 갈매기 떼는 아니지만, 암초 위 갈매기들까지 합세하니 맞먹하지 않은 구성이 되었다.

장호마을 포구는 그리 크지 않지만, 서른여섯 척의 어선이 쉴 사이 없이 들고나며 어획물을 부려놓기에 매일 아침 활기찬 어촌풍경이 연출된다. 크고 작은 자망어선들도 여러 척이지만, 역시 정치망 어선이 입항해 다양한 어획물을 위판해야 보기에 좋다. 날마다 되풀이 되는 어업인들의 일상이지만, 사진가를 포함한 도시사람들에게는 더없이 신선한 볼거리가 되어주는 것이다. 자망어선들이 연달아 입항하면서 위판장의 활기는 좀체 수그러들지 않는다.

여기도 좋아요! 아담하면서도 깔끔한 해수욕장이 있는 장호2리마을에선 여름이면 바닷속을 들여다보고 생선 등을 잡는 '창경바리' 체험을 할 수 있다고 한다. 옛날부터 어업인들이 사용하던 사각형 수경을 통해 바닷속을 내려보는 재미도 좋지만, 걸개 등으로 해산물을 직접 채취해 보는 것도 여간 재미난 일이 아닐 것이다.

신나게 즐겁게! 장호어촌체험마을 어업인들이 주도하는 어촌체험은 크게 바다체험과 어업체험으로 나뉜다. 이미 유명해진 투명카누가 인기가. 이외에도 바다레프팅, 스노클링을 즐기며 바다 속 엿보는 것이 바다체험이라면, 5~6월의 고등잡이와 통발 등 어업인들과 함께하는 조업체험도 인기가. 특히, 국내 최초로 시작된 투명카누가 체험관광객들에게 인기나 9월말까지만 운영을 한다.

배꼽시계 꼬르륵! 장호항 주변에만 맛집으로 소문난 수산물음식점이 열 곳이나 된다. 어업인이 직영하는 집도 있다. 정치망 어선에 잡힌 횡갑과 자망어업인들이 잡은 생선으로 조리한 구이 등 다양한 음식이 입맛을 유혹한다.

쉬어 가고 싶을때! 장호어촌체험마을에는 체험객이 많이 찾아오는 만큼 다양한 숙박시설이 구비되어 있다. 어가민박에서부터 단체체험객들이 이용할 수 있는 큼직한 숙박업소도 있으니 장호어촌체험마을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체험부터 숙박까지 안내받을 수 있다.

- 문의 : 장호어촌체험마을(<http://jangho.seantour.com>) 070-4132-1601



▲ 투명카누체험



▲ 장호위판장 어업인들